

KSC News **성령 은사적 쇄신 소식**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CR in the Americas

요한 바오로 2세, 영원한 삶의 순례 27년



2005년 4월 2일 토요일밤 9시 37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선종 하였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 가신 선교사였으며, 12억 신자들의 교사였고, 20세기의 예언자였으며, 탁월한 성령 봉사자였다.

[생애] 1978년 교황위에 올라 84세로 선종할 때까지 27년간 가톨릭 수장으로 재위했던 제264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는 1920년 5월 18일 폴란드 바도비체에서 퇴역 장교인 아버지와 교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카롤 요셉 보이티야. 어렸을 때는 로렉으로 불렸다. 로렉은 운동에 소질을 보여 수영, 스키, 등산을 즐겨 했다. 교황 재임시 휴가 기간에는 늘 스키와 등산을 즐기곤 했다. 고향인 바도비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 절친한 친구도 유대인이었다. 그는 아우슈비츠를 찾은 최초의 교황이었다. 그는 1938년 야겔로니안 대학에 입학해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며, 채석장 인부로도 일하고, 안드레이 예비엔이라는 필명으로 시와 희곡을 쓰기도 했다. 21세 되던 해 아버지

의 죽음 후 신학을 공부하고, 신부가 된 후 청소년 사목을 하며 철학자로서 저술 활동을 했다. 1946년 사제 서품후 38세의 젊은 나이에 주교가 되었다. 크라코프 대 주교를 거쳐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추기경에 올랐으며, 1978년 10월 16일 보이티야는 새 교황으로 선출됐다. 당시 나이 58세, 20세기 가장 젊은 교황이었다.

2005 쇄신 세미나 일정

5/5-8	씨애틀(WA) 공동체; 성령안의 삶 세미나; 박 정자 (425-774-1598)
5/13-15	NSC; Cenacle of Prayer For America - Pentecost 2005; 마이애미(FL); www.nsc-chariscenter.org
5/20-22	서북부 봉사회; LSS 봉사자 연수회; 이 용명 (425-338-2041)
5/29-31	덴버(CO) 공동체; 성령안의 삶 세미나; 이 현일 (303-875-3631)
6/5-8	동남부 봉사회; 성령안의 삶 세미나; 아틀랜타(G); 안 희숙 (704-839-6445)
6/10-12	L.A. 꽃동네; 성모 신심 세미나; 이 은경 (253-223-8775)
7/16-17	동남부, 동북부 봉사회; 성령대회; 이 테레사(201-947-4718)
10/4-14	KSC; 스페인 탐방과 파티마, 루르드 성모 발현지 순례; 신 정자 (440-835-3219)

미주 한인 천주교 성령가족을 위한 격 월간지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Tel.Fax. (253)663-4407
 news@kscusa.org http://kscusa.org

[과달루페 성모님] 1978년 즉위 후 27년간 교황은 아프리카 4번, 남미 5번등 104회의 여행 동안 129개국 방문함으로써, 먼 발치의 상징적인 존재에서 바로 우리 옆의 친밀한 동반자로 다가왔다. 교황의 첫번째 해외 방문지는 멕시코 과달루페였다. 100번이 넘는 해외 여행의 맨 처음 방문지가 과달루페였던 것이다. 그는 1979년 과달루페 성당(바실리카)에서 과달루페 성모님을 전 미주 대륙의 어머니로 명명했다. 교황의 기도서두가 “Virgin of Guadalupe, Mother of the Americas, ...”였다. 역대 24명의 교황이 과달루페 성모님께 공식적 경의를 표했지만, 요한 바오로 2세는 1979년 첫 방문이후로도 3번이나 더 과달루페를 찾았다. 특히 1999년 3번째 방문에서는 12월 12일을 전 미주 대륙의 전례 축일로 선포함으로써 과달루페 성모님 축일이 제정되었다. 1531년 과달루페 성모님과 만났던 인디오 후안 디에고는 그후 여러차례 바티칸 교황청의 성인 시성(諡聖) 품위에 올랐으나 기적을 입증하는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다. 2002년 7월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으로 추대됐다. 후안 디에고의 시성식은 교황이 과달루페를 방문해 직접 집전했다. KSC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1-2번 과달루페 성모 성지 순례단을 조직하여 멕시코 시티, 과달루페의 대성당에 가서 성모님을 참배하고 있다.

[파티마 성모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와 운명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던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 북부 파티마 지방에 6번에 걸쳐 나타난 성모님은 세 가지 예언을 남겼다. 목격자 셋 중 혼자 살아 남은 루치아의 증언은 문서로 정리돼 1957년 교황청에 보관됐다. 파티마 성모님의 예언 중 두 가지는 일찌감치 공개됐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해석되는 지옥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러시아 공산주의의 성쇠(盛衰)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교황청은 세번째 메시지는 철저히 함구했다. 2000년 5월 13일 공개된 메시지는 다름아닌 교황 암살의 모습이였다. 1981년 교황에 대한 저격은 바로 파티마 성모 발현 기념일인 1981년 5월 13일에 일어났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의 생명을 파티마 성모님께 맡긴 것이다. 교황은 자신을 저격한 회교도인 알리 아그자를 교도소로 찾아가 “아그자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게 한 행동을 모두 용서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품 안에서 한 형제이니깐요”하며 손을 잡고 함께 얼굴을 마주대고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자신의 복부를 관통한 총알을 파티마 성모님께 봉헌함으로써 자신을 평화의 제물로 삼았다. 파티마에서 일어난 성모 마리아 발현을 목격했던 세 어린이 목동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였던 루치아 수녀는 요한 바오로 2세 선종 49일 전인 2월 14일 97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한국 방문] 1984년 5월 3일, 교황이 마침내 한국에 왔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땅에 입을 맞추면서 “순교자의 땅, 순교자의 땅”이라고 찬미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하였다. “벗이 있어 먼데로 찾아가면 그야말로 큰 기쁨이 아닌가.” 그의 한국 방문은 공식적으로는 103위 성인의 시성식을 집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신 군부의 독재에 항거하는 동족상잔의 처절한 비극이 일어난 직후, 비극의 땅을 밟은 것이란 점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순교자의 땅에 엮드려 입 맞추고 광주 민주화 현장에서 “불화와 증오의 가운데서 화해와 평화의 도구가 되라”고 축복했던 모습은 수백 명의 순교자를 낸 영광의 땅 대한민국의 민족의 상처를 씻어내는 장엄 미사였다.

[업적] 요한 바오로 2세의 바티칸은 르네상스 이래 정치적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발휘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세계의 주요 정치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교황의 Solidarity 개념에 폴란드 노조가 응집함으로써 폴란드 공산 정권이 붕괴한 것은, 이어 독일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고 소련이 해체되는 시작점으로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정치적 업적으로 칭송된다. 러시아를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성모님께 봉헌한 것도 소련 해체의 전환점으로 일컬어진다. 그는 이슬람과 가톨릭의 대립의 화해자로 나서 수 많은 이슬람 국가들을 방문했다. 특히 그는 가톨릭이 절대 열세인 국가의 교우들을 보살피는데 힘을 기울였다. 한 예로, 교황은 이슬람권 중앙 아시아의 소국 아제바이잔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 나라의 가톨릭 신자는 121명에 불과했다.

[회개와 화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허물어 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 이어, 가톨릭의 과거 잘못에 대한 용서와 회개, 그리고 종교간 분열과 대립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화와 평화를 향한 초석을 놓았다.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아온 가톨릭의 수장, 교황이 자기 종교의 수치스런 과오에 대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용기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가 회개한 부분은 십자군 원정의 유대인 학살, 종교 재판과 고문, 마녀 사냥, 신대륙 정복자들의 원주민 학살 등이었다. 710년 콘스탄티노 교황 이후 1291년만인 2001년 그리스 방문에서 동방 교회와 화해하고, 이어 방문한 시리아에서는 가톨릭 역사상 최초로 교황이 이슬람 모스크에 발을 디뎠다. 우마야드 모스크는 세레자 요한의 머리가 보관된 무덤이 있는 곳으로서, 교황은 이 무덤에 혼자 남아 기도하기도 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스라엘 독립후 예루살렘을 찾은 사상 최초의 교황이기도 하다. 2000년 3월 이스라엘 방문에서 유대인의 최대 성지인 통곡의 벽에서의 교황의 기도는 가톨릭과 유대와의 화해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새 교황 베네딕도 16세, “우직하고 겸손한 주님의 포도원 일꾼”



새 교황으로 선출된 베네딕도 16세

4월 19일 오후 5시 50분, 시스틴 성당 굴뚝에서 교황 선출을 알리는 흰연기가 피어 올랐다. 곧이어 성당의 종이 울리고, 칠레의 에스테베즈 추기경이 성 베드로 성당 발코니의 진홍색 두꺼운 장막을 젖히고 나와 라틴어로 선포했다. “하베머스 파팜 (We have a pope)”. 제 265대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발코니에 나타나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군중들의 환호에 접한 교황의 첫 마디는 “나는 우직하고 겸손한 주님의 포도원 일꾼이다” 였다.

52개국 115명 추기경단의 이틀에 걸친 선거 중 4번째 투표에서 득표 2/3를 넘어 새 교황에 선출된 독일 출신 조셉 라징거 추기경은 1981년부터 신앙 교리청 장관으로서, 20년간 요한 바오로 2세의 신학 고문으로서, 또한 지난 3년간은 추기경단의 장으로서

바티칸의 2인자였다. 요한 바오로 2세와는 1965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당시 서로 젊은 신부로서 만났 이래 계속 친교를 유지해 왔다. 78세인 베네딕도 16세는 200년내 선출된 교황 중 최고령이다.

교황명인 베네딕도는 제 1차 세계 대전 중 교황이었던 베네딕도와 유럽의 수호 성인인 성 베네딕도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바티칸에서 지난 24년간 신앙 교리를 담당했던 라징거 추기경은 해방 신학, 동성애, 신부의 결혼, 여성 신부 서품 등 전통적인 가톨릭에 반하는 진보 사상에 대해 엄격하게 반대하는 보수주의자였다. 요한 바오로 2세가 타 종교를 인정하는데 비해, 라징거 추기경은 가톨릭이 진실한 유일 종교임을 주창하며 타 종교와의 양립을 부정해 왔다. 그는 동성애가 “본질적 도덕의 악”이며, 소련과 그 위성 국가들을 “우리 시대의 수치”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는 1927년 4월 16일 독일에서 경찰관의 아들로 태어나, 1951년 사제 서품, 1953년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여러 대학에서 신앙 교리를 강의했다. 1977년 3월 뮌헨 대주교에 취임했으며, 3개월 후 바오로 6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현재 모든 추기경 중, 그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임명하지 않은 단 2명의 추기경 중 한 사람이었다.

그의 나치 전력을 의심하는 소문이 있으나, 1941년 14세 때 히틀러 소년단에 가입한 것은 당시 가입은 의무적인 것으로, 학교 관리들이 전체 학급을 소년단에 가입시킨 것이었다. 2차 대전 당시 1943년 독일군에 징집됐으나 1945년에 탈영했다.

KSC 스페인 탐방과 성모 발현지 순례 회원 모집

유럽, 스페인 탐방 (파티마, 루르드 성모발현지 순례 포함) 참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4월말 시한으로 부여한 후원 회원 참가 신청은 마감하였고, 아래와 같이 일반회원의 참가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 일정 : 2005년 10월 4일(화) - 14일(금) (10박 11일)
- 집합 장소 : 뉴왁 국제공항 (EWR); 집합 시간-4일 6:00 pm; Continental Airline 출발시간-4일 8:00 pm
- 비행기표 : LIS-EWR-PAR 왕복-US \$550.00+ - (각자 직접 구입)
- 문의 여행사 : 세계 여행사-Lydia Lee (전화: 800-555-9352, 562-403-2277)
- 회비 : US \$1,700.00 (현지 비용-숙식, 교통비, 입장료등 포함)
-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를 예약금 US \$500.00 (Check) 과 함께 보내주세요.
Dr. Janet Shin (전화: 440-835-3219), 2404 Georgia Drive, Westlake, OH 44145
- 안내 사제 : 류 충희 신부
- 마감 : 2005년 5월 31일 (40명 선착순)

내 가슴안에 계신 주님!

미네소타 찬미 기도회 김추심 카타리나

지극히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 카타리나는 당신께서 내 비치신 사랑 안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사랑의 이름까지 지어 주셨으니 무한한 영광이라 감사합니다. 이제야 확실히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계신 것을 미심쩍어 했습니다. 저 잘났다고, 제가 살아온 방식이 틀림이 없고, 저 혼자만 착하게만 살면 되겠지 하는 착각속에, 크나큰 오만이 저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련한 저를 교만과 미움에서 끌어내시어 용서로 이끌어주시고, 또 다시 용서에서 화해와 감사로 이끌어 주시며, 감사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으며, 당신이 원하시는 사랑의 진실이 여기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구원하여 주셨으니, 저를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 또한 끝까지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영원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뵈고자 할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 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따뜻한 당신의 품으로 저를 꼭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마다 기쁨에 넘쳐 이 가슴이 떨리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 향하는 이 두근거리는 가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겼음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눈먼 제 모습을 뒤돌아 보지 않으렵니다. 당신께서 주신 크고 영원한 사랑과 진리의 보물들이 제 앞에 이렇게 무한정 펼쳐져 있으며 주님의 모습이 수 없이 제 눈앞에 펼쳐 보이는데 어찌 지난 과거를 돌아보겠습니까?

조용히 앉아 당신을 그리워하는 기도를 할 때, 하늘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잠자리에 누워도, 땅을 보고 길을 걸어보아도, 아름다운 꽃들과 날아가는 새들을 보아도, 우리의 삶의 길잡이인 성서를 읽어도, 내 마음을 흔드는 성가를 들어도... 주님께서는 항상 모든곳에 계신 것을 깨달았는데 눈 먼 과거를 떠올려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많은 보물들을 다 붙잡고 살아가기에 한이 없는데, 감사하고 행복해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제 천국을 궁금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만끽하며 살아가기에 더 바쁠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람에게는 1%의 의심과 주님에게는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99%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의 머리속에는 당신의 제자 토마가 당신을 의심할때 처럼 당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고자 하는 의심이 늘 깔려 있습니다. 저희의 눈에는 오직 그 1%의 의심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당신만이 알고 계시는 99%의 미지의 세계가 저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아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비로운 주님의 세계에 새로운 눈을 가느 다랗게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발자국씩 주님께로 다가 가려고 막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걸음마를 지켜봐 주시고, 저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저의 앞에 펼쳐져 있는 찬란한 보물들을 잡기 위해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그 미지의 신비스러운 보물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찬란한 주님의 보물 창고의 빛을 받아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미천한 자, 천국을 그리워하는 빛을 발하는 자그마한 보석이 되고자 하오니,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때 까지 항상 제 곁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제 가슴 안에 계신 것을 알았으니, 저는 주님을 영원히 믿고 따를 것입니다.

당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2005년 부활절 영세를 받고 -

감사합니다.

4월 20일 현재 후원금

한 세실리아 (OR)	\$100.00
동남부 봉사회 (NC)	\$500.00
한 보람 (NC)	\$500.00

성령 가족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미주 한인 사회에 성령의 불을 놓아 하느님 나라 건설의 주춧돌이 됩니다. KSC와 더불어 미주 한인 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은사적 쇄신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